기획논문 「정부학연구」 제12권 제1호(2006): 61~82

다산의 경학사상에 나타나는 조직이론 연구:

버렐과 모건의 사회학적 준거틀을 적용하여*

김성현**

다산 정약용은 많은 저서를 통해 그 시대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혁의 원리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리와 대안을 버렐과 모건의 사회학적 맥락의 준거틀에 의해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의 이론적 사상적 틀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산의 사상은 객관과 주관사이 그리고 변동보다는 규제 및 질서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다산 정약용의 특성으로부터 세 가지 함축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었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조직이론, 개혁

Ⅰ. 서 론

다산 정약용(1762-1836)은 500여 편이 넘는 많은 저서를 통해 국가 전반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 관제·군현제·전제·부역·과거제·세제 등 국가경영에 관계된 제도들을 개혁하려 했다. 이러한 개혁 내용은 합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조직의 구조와 관련된 조직이론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1] 그러나 중세와 근대가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BS0134).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hicloud01@yahoo.co.kr).

1) 다산은 「자찬묘지명」에서 '경세'를 관제·군현제·전제·부역·공시·창저·군제·과거제·해세·상세·마정·선법·영국지제 등을 현행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날을 세우고 벼리를 풀어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으며 「경세유표」의 저술동기를 국가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낡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려는 데 있다 하였다(김기승, 2005)

갖는 의미와 기준 시점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작업인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조직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2)]

사회에서 조직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직을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올바른 진단과 이해가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은 다양한 속성의 행태를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복잡다양하고 애매하다. 더욱이 같은 조직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 및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접근방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에치오니(Amitai Etzioni, 1975)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을 고전이론·인간관계론·구조론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으며, 볼먼과 딜(Lee G. Bolman & Terrence E. Deal, 1984)은 구조적 접근방법·인적자원적 접근방법·정치적 접근방법·상징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이해하였다. 특히 버렐과 모건(Gibson Barrell & Gareth Morgan, 1979)은 조직이론을 사회학적 맥락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능주의 조직이론, 해석학적 이론, 반조직이론, 급진조직이론으로 분류하였다(김병섭 외, 2003: 24).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500여 편이 넘는 수많은 저서들을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개혁적 사상의 지표로 삼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 저서를 통해 다산은 보편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혁의 원리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리와 대안들을 적당한 분석틀에 의해 분류하고 분석한다면 현대적 의미의 조직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각의 이론적·사상적 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 정약용의 개혁의 원리와 대안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류틀로서 조직이론을 사회학적 맥락에 결부시키고자 한 버렐과 모건의 분류는 다산 정약용의 저서로부터 이론적·사상적 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즉 다산정약용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원리와 대안들을 현대적 의미의 준거틀에 적용함으로서 현대 조직연구에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함이다.

2) 과거를 비판하는 문제제기는 일반적으로 전향적 비판과 복고적 비판의 두가지 목적이다(조혜인, 1998). 본 논문은 과거를 비판함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향적 목적의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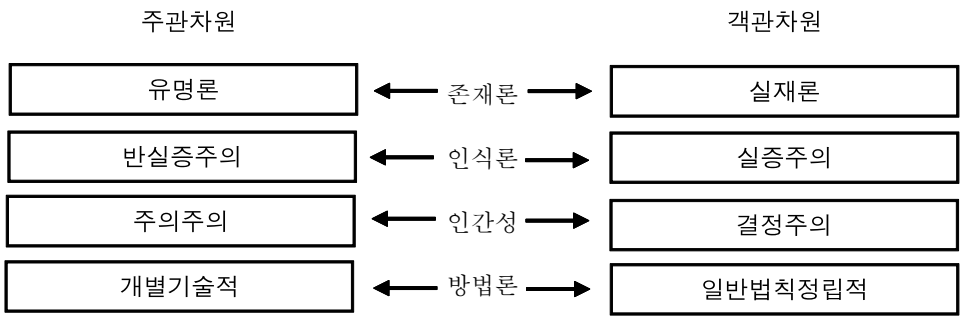
Ⅱ. 버렐과 모건의 조직이론 준거틀과 의미

버렐과 모건은 조직이론을 사회학적 맥락에 결부시키고 있다. 즉 모든 조직이론들이 하나의 과학철학과 사회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조직이론을 분류하기 위한 준거틀을 크게 두 가지 측면인 사회과학철학과 사회성격에 관한 가정으로 나누고 있다(윤재풍 역, 2001).

1. 사회과학의 철학적 가정의 분류 기준

사회과학의 철학적 가정은 크게 주관과 객관의 차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분류하기 위해선 존재론, 인식론, 인간성,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유명론과 실재론, 반실증주의와 실증주의, 주의주의와 결정주의, 개별기술적 방법과 일반법칙정립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은 사회이론의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며 그 특징은 주관과 개관의 차원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윤재풍 역, 2001).

<그림 1> 사회과학의 철학적 가정의 분류 기준



우선 존재론적 성격으로 유명론과 실재론은 현상의 본질자체에 대한 논의이다. 유명론은 개인적 인식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세계란 현실을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이름, 개념 및 명명으로 구성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실재론은 개인의 인식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세계는 엄격하고 가시적이며 비교적 불변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실제적 세계라는 입장이다. 특히 실재론에 있어서 사회적 세계란 그것을 인식하는 개인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윤재풍 역, 2001).

반실증주의와 실증주의의 구별은 지식근거에 관한 가정으로 실체 즉 본질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분류기준으로 반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사회적 세계가 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연구대상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개인의 관점에서만 이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자'가 아닌 '행위참여자'의 준거기준을 파악함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으로서 경험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바를 규칙성이나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함으로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인식론상의 특성을 표시하는 입장이라 하겠다(윤재풍 역, 2001).

한편 인간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인 인간성의 경우 주의주의와 결정주의로 구분된다. 환경을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주의주의는 인간이란 완전히 자율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활동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다는 입장이다(윤재풍 역, 2001).

마지막으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론은 개별기술적 방법과 일반법칙적 방법으로 나뉜다. 개별기술적 방법은 연구대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식을 얻음으로서 사회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상황의 내면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흐름에 스스로 관여함으로서 연구대상이 생성하는 주관적 설명의 분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윤재풍 역, 2001).

2. 사회성격 가정에 의한 분류

버렐과 모건의 또 다른 기준은 사회의 성격에 관한 가정들로 질서와 갈등 논쟁 또는 규제와 급진적 변동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질서 또는 규제의 사회학 가정은 인간문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사회를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함으로 서로 결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갈등 및 급진적 변동의 가정은 질서 및 규제의 사회학 가정과 대조적인 입장으로 변동과 심층적인 구조적 갈등 및 모순에 대해 설

명을 하고 있으며 인간발전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저해하는 여러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관심을 갖으며 존재보다는 가능성에 현상유지보다는 대안에 관심을 갖는 사회이론의 특징이다(윤재풍 역, 2001). 이는 다음의 <표 1>로 표현될 수 있다.

<표 1> 규제와 급진적 변동의 분류기준

규제 사회학의 관심	급진적 변동사회학의 관심
현상유지	급진적 변동
사회질서	구조적 갈등
합의	지배양식
사회통합과 응집성	모순
유대	해방
욕구충족*	박탈
현실성	잠재성(가능성)

* 여기에서 욕구충족이란 개인이나 체제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는 용어이며, 박탈의 개념은 사회체제가 인간의 욕구달성을 방해하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자료: 윤재풍 역(2001)

3. 사회학적 맥락의 조직이론 준거틀과 의미

1) 버렐과 모건의 조직이론

위의 두 가지 차원의 접근방법 즉 과학의 성격에 관한 여러 가정들은 주관과 객관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사회의 성격에 관한 가정들은 규제와 급진적 변동의 차원에서 생각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버렐과 모건은 이들 두 가지를 조합하여 광범위한 사회이론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명백한 사회학적 패러다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급진적 인간주의, 급진적 구조주의, 해석학, 기능주의로 구분된다. 그러나 다음의 구분은 포괄적인 거시이론의 가정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가정들 안에는 많은 변이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윤재풍 역, 2001).

<그림 2> 조직이론의 분류 준거틀

변동

주관적		객관적
	급진적 인간주의 (실존주의, 개인주의, 비판이론)	**급진적 구조주의**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
	해석적 (현상학, 해석학)	**기능주의** (객관주의, 기능주의, 실증주의)

규제

위의 가정들안에서는 많은 변이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이러한 이유는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가의 사회이론에 관한 준거틀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론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가 정하는 수단이 된다.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학문으로서의 사회학 연구의 수행과 조직의 연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질서 및 규제사회학에 확고한 근거를 갖는 시각을 대표하며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접근한다. 또한 사회적 사상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지향에 있어서 극히 실용적인시각을 가지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형성함으로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문제 지향적이며 사회의 질서, 균형 및 안정성의 이해와 그러한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주의 패러다임은 독일의 관념론적 사회사상의 전통적 요소로부터 점차 영향을 받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막스베버, 게오르그 짐멜, 조지허버트 미드 등과 같은 학자에 의해 객관과 주관 사이에 놓인 간격을 가교하려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상호작용주의'와 '사회적 행위이론'과 같이 해석학적 패러다임과의 접합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1940년대 이후에는 급진적인 변동사회학의 특징을 지닌 일부 마르크스주의자의 영향에 의해 '갈등기능주의' 및 '통합이론'과 같이 갈등론을 질서론의 범위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

력도 이루어지게 된다.

해석적 패러다임 역시 규제의 사회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주의적인 기능주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유명론, 반실증주의, 주의주의 및 개별기술적 방법의 경향을 띤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를 한 개인의 의식의 바깥에서 어떤 존재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로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적 패러다임은 독일의 관념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은 주관주의적 입장의 해석적 패러다임의 그것과 공통적이지만 급진적 변동의 사회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 사회제도가 초래한 인간의 발전을 막는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소외' 혹은 '허위의식' 등이 그것으로 반조직이론이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급진적 패러다임은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급진적 변동사회학을 지지한다. 따라서 과학의 접근방법에서 기능주의 이론과 여러 가지 공통성을 갖지만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즉 급진적 변화, 해방 및 잠재성에 관련되며 그 분석에 있어서 구조적 갈등, 지배의 양식, 모순과 박탈에 역점을 둔다. 헤겔의 제자인 마르크스의 영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베버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급진적 패러다임의 갈등이론분야는 현재의 조직이론 연구에 많은 함축적 의미를 주고 있다 하겠다.

2) 다산의 연구에서 버렐과 모건의 준거틀의 의미

위에서 제시한 버렐과 모건의 준거틀은 다양한 이론가들의 업적, 특히 그 이론가들이 채택하는 기본적인 준거틀의 근본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확인하는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이론가 개인 자신의 사회이론에 관한 준거틀을 정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시한다(윤재풍 역, 2001). 따라서 이론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원리와 사상을 이러한 준거틀에 대입함으로서 다산의 이론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서에 나타나는 조직과 관련된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산의 개혁의 원리와 대안들을 현대적 의미의 조

직이론으로 재해석함으로서 조직이론을 적용하거나 조직에 대한 이론적·사상적 준거 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현대 정부조직 개혁에 줄 수 있는 함의 도출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산의 이론 및 사상을 분석함으로서 다산의 조직 관련 저서를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요소도 가져 올 것이다.

Ⅲ. 다산의 조직이론 분석

1. 주관과 객관의 차원에 대한 분석

1) 존재론적 접근 분석

존재론은 유명론과 실재론의 대치로서 설명되고 있다. 유명론의 입장은 개인적 인식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세계란 현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이름, 개념 및 명명(labels)으로 구성될 뿐이라는 가정에 충실함으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기술하는 세계의 어떤 '실재적'구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실재론은 개인의 인식의 외부에 있는 사회적 세계는 엄격하고 가시적이며 비교적 불변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실재적 세계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차원에 의해 분석하기 이전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이기론(理氣論)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理)는 이치로서 사물들의 어떠한 활동이나 작용이 있게 하는 근원이다. 그렇지만 그 스스로 작용을 하지는 못하고 다른 기운의 흐름에 동행하면서 사물이 있게 만드는 존재다. 이는 무형의 형이상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氣)는 기운으로서 스스로 작용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다. 기는 유형의 형이하학적인 기로, 이치에 따라 만물을 생성, 소멸 시키는 존재이다(이대희, 1999: 172~173). 이러한 이와 기에 대한 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산의 경우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보편적인 원리로서 우선시하는 정주학적 사유체계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경험적인 존재인 기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있다(윤재풍, 2005). 다산은 다음과 같은 은유로서 氣는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이고 理는 기에 의존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 이의 뜻은 본디 옥이나 돌의 결(脈理)이다. 옥을 다듬는 자는 그 결을 살핀다. 옥이 있어 결이 있듯이 이는 기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는 자유로운 존재(自由之物)이고 이는 의존하는 존재(依附之品)이다. 따라서 의존자는 반드시 자유로운 자에게 의지한다(맹자요의, 138; 중용강의, 93).

2) 인식론적 접근 분석

다산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격물치지'라는 성리학적 논의와 구분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이천과 주희를 중심으로 한 정주학의 인식론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험적인 지를 외부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확인하고 자각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식의 주체는 나이지만 인식의 궁극적 대상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적 사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외적인 인식대상을 통한 지식은 자신의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선험적 지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 내지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이천의 인식사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장복동, 2004). 이는 뒤에 언급되겠지만 동양철학 특히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인간동형론과도 연관된다 하겠다. 반면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성리학과는 달리 인성과 물성의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김경태, 2005)[3].

우선 다산은 인간과 자연을 엄격히 분리 후 '격물치지'를 실천적인 자기수양의 의미로 귀결시켰다. 결국 인식의 문제를 자기수양에 토대를 둔 실천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인식과 실천의 주체인 마음의 본질을 해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마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무형의 본체로서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현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치를 신묘하게 깨달으며,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의 주체이다. 동시에 사람의 마음은 그 속성상 활동적이고 신묘해서, 공간적으로 무한의 경계까지,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궁구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이 온갖 이치를 미루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획

3) 다산의 인간성에 대한 논의는 서학의 영향하에 형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성선설과 성악설의 인간과 만물의 본성이 동일하다는 인간동형론을 부정하고 인간과 자연을 엄격히 분리하였다.

득한 구체적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구성하여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추상적 인식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내가 사물과 만나는 통로는 감각기관에 있다. 귀는 소리를 모아 심에 바치고 눈은 색깔을 거두어 심에 바치니 이것이 그 직분이다. 눈과 귀는 다만 그 직분을 다할 뿐이다. 어찌 이 심으로 하여금 억지로 그 바친 바를 다르도록 할 수 있겠는가?(맹자요의 2권, 29-30)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 실존주의 샤르트르의 '무'의 개념과 유사하다. 실재세계와 개개인의 의식 사이에 놓여 있는 간격을 '무'라 불렀다. 이는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구성하여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추상적 인식능력과 상호 연관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산의 인식론의 경우 주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전의 정이천의 사상과는 달리 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외부사물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3) 인간성 접근 분석

인간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사회적·과학적 이론에서 인간모형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크게 주의주의(Voluntarism)와 결정론(determinism)의 논쟁으로 대표된다. 인간과 인간의 활동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결정론적 견해와 인간이란 완전히 자율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주의주의적 견해로서 구분된다. 이러한 서양에서 출발한 인간성에 대한 논의를 정확하게 다산의 저서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우리는 맹자와 순자의 성선설과 성악설을 분석함으로서 다산의 인간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맹자와 순자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사상은 다 같이 자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간사회의 규범으로 채택한 점에서 자연의 인간동형론, 즉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같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이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양학문에서의 인간성에대한 논의에 대한 적용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우선 맹자의 성선설을 살펴보면 자연을 단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동물적

인 본능이 육체적이고 이기적 향락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정신생활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빚는다고 여겼다. 반면 성악적인 순자는 자연을 맹자처럼 낭만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자연은 생존투쟁의 싸움이 벌어지는 무대이며 이러한 자연에서 싸우는 생명(인간)이 성선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의 본능이 인간에게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본능 대신 지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능적 사회생활을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효, 2004)

위의 성선설과 성악설의 내용에서 방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성선설의 경우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능이 사회생활을 통해 육체적이고 이기적 향략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정신생활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주의주의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하겠다. 반면 성악설의 경우 자연이 생존을 위한 싸움의 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선적이지 못한 상황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인위적인 지능적 사회생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다.

다산의 인성론은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맹자의 성선설을 기본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다산에 의하면 사람은 배태하자마자 선천적으로 영명무형(靈明無形)한 체를 부여받았으므로 선과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인성이고 따라서 성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용자잠에서 찾을 수 있다.

> 대개 사람이 배태하여 이미 태어나면 天은 곧 靈明無形한 體를 부여하였는데 그 物이 됨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 한다. 이를 일러 성이라 하고 이를 일러 성선이라 한다(中庸自箴, 1:2)

그리고 위의 인간이 부여받은 영명무형한 체를 영지의 기호라고 하며 영지의 기호는 인간 본심의 기호이고 참된 것, 착한 것을 밝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영지란 이러한 마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한다(최동희, 1980).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大體이며 이 대체를 따르면 선이 되지만, 小體를 따르면 악하기 쉽다고 한다.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性과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 쉬운 중간에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주권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이다(김경태, 2005). 이러한 논의 결과

다산의 경학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방향은 주의주의에 가깝다 하겠다.

4) 방법론적 접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정의는 크게 개별기술적 접근방법과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으로 나눌수 있다. 개별기술적 접근방법은 연구대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식을 얻음으로써만 사회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반면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은 체계적인 절차와 기법에 바탕을 둔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 자연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 요약된다 하겠다(윤재풍 역, 2001).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 과학적 방법을 동양의 그것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환원의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연과학에서의 방법론은 '사실적 확보'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과의 공통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적 요소와 가치적 요소를 구별함을 물론 A는 B와 C라는 대상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하며 B와 C는 A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여기서 B와 C는 독립변수라 할 수 있다). 반면 개별기술적 접근방법은 개개인의 주관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현상학에서의 reflection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박선영, 1995). 이는 문학적 용어인 환유(metonymy)와 은유(metaphor)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 환유로서 설명되고 후자의 경우 은유로서 설명된다 하겠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다산의 방법론을 살펴보기 이전 먼저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형효(2004)는 성선설의 경우 자연의 '선'과 같이 인간이 옳음을 실천해야 함에도 그 자연의 '선'이 인간의 사회생활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 숨어 있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은유가 필요하다 하였으며. 반면 성악설의 경우 자연의 '악'이 인간의 '악'으로 이동시킨 결과 무수히 관찰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환유로서 설명된다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다산의 방법론을 유추해보면 은유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의 논어고금주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젖먹이 아이라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얼굴에 기쁜 빛을 나타내고 어린아이라도 꾸지람을 들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선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얼굴에 기쁜 빛을 보이는 것이며 악을 부끄러워 할 줄 알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일게 되는 것이다. 도척은 악인이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 청렴하다 칭찬하면 그는 즐거워하고 음란한자는 악인이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 정숙한 여인이라 칭찬하면 그가 좋아함은 무엇 때문인가? 덕을 좋아하거나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천성에 근본하여 비록 이 천성을 깡그리 손상하여 남은게 없어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맹자의 성선설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는가?(論語古今註, 9:11~12)

이처럼 다산은 성선을 증명하기 위해 젖먹이 아이와 기쁜 빛 등을 은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다산의 모든 저서는 조선의 실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자료로 남겼고 이를 자신의 저술 작업의 기본적 자료로 적극적 활용했다(김기승, 2005). 이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인 은유만을 논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2. 규제와 변동의 차원의 접근 분석

실학사상은 정치적으로는 민권의식의 발아, 경제적으로는 농민적 토지 소유의 가능성과 상품 화폐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해체와 평등사회의 지향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약용을 위시한 실학사상의 내용을 '국가재조론'이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 정치, 사회, 경제제도의 개혁론도 기존의 왕조체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실학파의 국가개혁론은 근대 국가로의 지향성보다는 왕조 국가체제를 다시 구축하고자 했다는 '국가재조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지두환, 1987,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태동고전연구 3권).

한편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주례를 모델로 하여 저술되었다. 주례의 육전체제를 원용하였는데, 이것은 주대의 제도를 이상적인 국가제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대의

국가제도는 그 이전의 요순의 선왕들이 정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다산 역시 요순시대, 선왕의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과거 역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국가개혁 사상을 피력했다(김기승, 2005). 또한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법도가 무너져서 모든 일이 어수선한 무질서한 상황으로 파악했다 즉 정약용은 당시의 상황을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병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이는 아래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임진왜란 이후 온갖 법도가 무너져 버렸고 모든 일이 어지러워 졌다. 군문이 여러번 증설되어 국용이 탕진되었다. 전제가 문란해졌고 부세제도는 편벽되었다. 생재의 원천은 있는 힘을 다해 막았고, 재물을 소비하는 구멍은 마음대로 뚫었다. 이에 오직 기관을 혁파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구급의 처방을 삼았다. 이익이 되는 바는 되와 말이었는데, 손해 보는 바는 산더미였다. 백관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올바른 선비는 녹봉을 받지 못했다. 일찍이 내가 생각하건대 병들지 않은 터럭이 하나도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수수방관할 바이겠는가?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규제사회학의 맥락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뒤르깽(1938)의 경우 사회의 자연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노미(anomies)'와 '무규범성(normlessness)'의 상태가 병리학적인 일탈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대의 법제를 이상향으로 보고 비판적인 검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병리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규제사회학의 맥락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산 정약용의 사상은 주관적이며 질서와 규제를 강조한다 할 수 있겠다. 특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하에서의 병폐를 고쳐나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현대의 현상학·해석학적 입장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물론 다산의 조직이론을 현대의 현상학과 해석학적 입장과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능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체제이론'의 경우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원방법과는 달리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직화의 개념을 '체제'로서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처럼 위에서 분류된 분석틀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들 안에는 많은 변이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준거틀을 기초로 하여 다산의 조직이론 즉 조직관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서양과학에서 나타나는 객관과 주관의 논쟁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접합점인 '사회적 행위론', 질서와 변동의 논쟁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기능주의'와 같은 통합이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비교과정에서 다산의 조직관에 대한 정의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언급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관과 객관의 분류기준인 철학적 가정의 분석과정에 찾을 수 있는 논의 점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한 서양과는 달리 다산은 주관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인식론 및 인간성 측면에서 확실한 주관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도 개별 기술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기본적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과 조선의 실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토대로 설명하였다는 점은 객관적 차원으로 많은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특히 존재론의 경우 기(氣)를 중시하는 실재론 쪽으로 좀 더 기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다산 정약용의 분석결과 특징은 주관적 측면에서 객관적 측면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산 정약용이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태, 2005). 결과적으로 현재의 패러다임이 객관적 측면의 기능주의 패러다임이지만 주관적 측면의 해석학적·현상학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분석결과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산 정약용의 사회 성격적 차원의 분석 결과로는 규제사회학의 맥락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주대의 법제를 이상향으로 보고 비판적인 검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병리현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할 부분은 명백해진다. 급진적 변동 사회학의 논점인 구조적 갈등, 지배양식, 모순, 소외와 같은 박탈 등을 다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제사회학의 관심인 현상유지, 사회질서, 합의, 사회통합, 욕구충족 등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산이 본 경

학사상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논제라 할 수 있겠다.

Ⅳ.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다산의 조직이론이 갖는 함의

1. 막스 베버의 이념적 이해와 다산 정약용의 이기론

분석결과 다산 정약용의 경학사상에서 나타나는 조직이론의 특징은 주관과 객관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서학의 영향이라는 점은 뒤로하더라도 이전의 정주학에서 주관성을 강조하던 점과는 달리 이(理)와 기(氣)를 분리하고 더 나아가 기를 중시한 점과 방법론에서 개별 기술적 접근방법과 가깝지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조사가 기본이 되었다는 점 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실증주의가 지향하는 인식론의 범위 내에서 관념론과 실증주의를 종합하려고 시도하였던 베버의 '이념적 이해론(ideal interests)'과 '사회적 행위론(social action theory)'과 비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한다.

막스 베버가 주관과 객관사이에 위치한다는 대표적인 예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이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첫째 문장의 '이해(interest)'와 둘째 문장의 '이념(idal)'이 그것으로 경학에서 기(氣)에 해당하는 '이해(interest)'를 물질적 이해와 이념적 이해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김상준, 2000). 이러한 이념적 이해는 사회적 행위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 이념이 아닌 물질적이고 이념적인 이해(interest)가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나 이념(ideal)에 의해 창조된 '세계에 관한 이미지'들이 마치 전철수(swithman)처럼, 이해의 역학에 의해 추동되어지는 행동이 달려 나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Weber, 1958: 280)

사회적 행태론에 주의주의(voluntarism)의 방법을 주입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정의함으로서 그것에 따라 행위한다는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 사상의 설명에는 개인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과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개인들이 갖는 인지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정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윤재풍 역, 2002). 코헨(cohen)이 언급하였듯이 '행위론'은 전형적인 상황 속에 있는 전형적인 개인들의 행위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양식의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산 정약용이 남긴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의 저서를 해석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기술체제론과 다산 정약용의 기예론

경세치용(經世致用)학파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은 기계 설계, 제작, 한강 주교 설계, 수원성 축제에 거중기, 활차 고안 등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산정약용의 기술에 대한 강조는 이용후생(利用厚生)학파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기예론(技藝論)을 통해 기술 발전과 인간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예론의 해석에 있어서도 분석결과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 중 기능주의 패러다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타비스톡 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한 산업생산체제에서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연구인 사회기술체제(social-technical system)이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호손연구 이후 직무만족, 리더십유형, 인간관계 이외의 요소가 무시되다 기술이 사회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영국의 광산에서 장벽 석탄채굴방식의 도입이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기계화된 대량생산형의 석탄채굴 시스템이 '손으로 석탄을 파는' 전통적 방식을 바꾸었으며 그것은 갱 안에서의 작업과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작용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작업집단을 단순한 기술체제나 사회체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기술체제 서로 상호 의존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균형모형의 가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장벽 채굴방식의 형성에 반영된 기술변화는 '기계화 이전의 균형'을 교란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광부들의 반응은 이 교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하였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조직의 변화를 규제사회학의 관심인 현상유지, 사회질서, 합의, 사회통합, 욕구충족 등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많은 사람의 힘이 聖人 한 사람보다 나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술이 보다 정밀해지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기술이 발전하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또한 중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기예론 전서1, 226)[4]

이런 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기예론 해석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요인인 국가제도의 개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전과는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위의 예에서와 같이 '경세유표' 및 '목민심서' '흠흠심서'등에서 나타난 주된 개혁방법들이 왜 중국의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며 또한 우리에게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기술의 발전과 개혁방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조사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3. 병리현상의 원인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주례의 육전체제를 원용하였는데 이유는 주대의 제도를 이상적인 국가제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산 정약용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총체적 문제를 주대의 제도를 잘못 파악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산의 관점은 병리현상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접근방법에 의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사이몬과 셀즈닉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이몬은 행정행태론에서 조직의 구성을 조직내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기적 접근과 조직의 구성요소인 구조적 접근으로 나누고 조직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셀즈닉은 인간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동일하나 사이몬과는 달리 비합리적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공식조

4) 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 此 勢之不得不然者)中國之新式妙制 日增月衍 非復數百年以前之中國 我且漠然不相問 唯舊之是安 何其懶也.

직이 비공식적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아 조직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점은 다산 정약용의 개혁사상을 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등에서 많은 개혁을 통해 왕조체제의 재편과 보완에 힘쓰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저서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원인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약용은 주된 병리현상의 이유로 법질서와 그에 따른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문제점은 관리들의 탐학이 만연하고 생민이 빈곤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래 성선설을 주장하는 다산 정약용의 인간성에 대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4.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조직관의 한계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조직관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버렐과 모건의 준거틀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현대 조직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외현상 및 구조적 모순, 갈등의 개념 등을 다산의 저서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직관 분석과정에서 설명하듯이 다산의 조직관은 주관차원에서 객관차원으로 변동하는 과정에 있으며 급진적 변동보다는 질서 및 규제의 사회학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에서 제기된 자신과 자신의 참된 의식사이에 인지적인 쐐기이며 진정한 인간의 실현을 억제하거나 방해한다는 '소외'개념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양반 및 중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그 당시 구조의 모순에서 찾는 점은 찾아 볼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급 간 갈등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갈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갈등기능주의'와 같은 요소 또한 찾을 수 없다.

다만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관리구조의 비합리성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즉 아래의 예와 같이 수령과 아전 간의 갈등상황을 고을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이를 세습하고 있는 아전들과 임기제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지금의 수령은 그 임기가 길어야 혹 2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만에 바뀌게 되니, 그

> 됨됨이가 주막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데, 저들 좌(佐)·보(輔)·막빈(幕賓)·복예(僕隷) 등은 모두 아비가 전하고 자식이 이어받아 옛날의 세습하는 경(卿)과 같다. 주인과 나그네란 형세가 이미 다른데다 오래고 오래지 못한 사정이 또한 다르다.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도, 천지의 정분(定分)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도피하였다가 나그네가 떠나면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 부를 즐기기를 그대로 하니, 또 무엇을 겁내겠는가(목민심서 제1부 부임육조, 제1장 제배).

이렇듯 다산 정약용의 조직관을 현대조직개념에 적용함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은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저서에서 함의를 찾는 연구에도 그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시대적으로 또한 위치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의 이론이지만 이를 현대적 분석틀로 분석하였을 때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과는 달리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버렐과 모건의 준거틀을 기준으로 다산 정약용의 조직관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이며 질서와 규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학의 철학적 가정의 분류기준과 사회성격 가정에 의한 분류기준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패러다임과 연결하였을 때 다산 정약용이 갖고 있는 조직관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현대 조직이론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함의점도 제시 할 수 있었다. 즉 주관과 객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베버와의 비교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강조는 다산의 개혁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병리현상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 다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다산의 수많은 저서에서 현대 조직이론에 적용하기 위한 함의를 찾는 연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준거틀에 의한 분석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시각의 조직연구를 제시했다는 점 이외에도 다산 정약용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적용할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태, 2005, “다산의 인성론과 서학과의 관련성 고찰,”《교육발전연구》제 21집 제 1호. pp. 5-21.

김기승, 2005, “다산 정약용의 부국강병형 국가 개혁 사상,” 《한국사학보》 제 19호, pp. 61-93.

김병섭·박광국·조경호 공저(2003), 《조직의 이해와 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김상준, 2000, “예의 사회학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서서 : 막스 베버의 이념적 이해(ideal interests),” 《2000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pp. 198-206.

김정우, 2005, “다산 정약용과 브레바드 S. 차일즈의 유신론적 경전해석학 비교연구,” 《종교연구》제 38권 봄호, pp. 61-91.

김진규, 2004, “다산 잡문 연구,” 《새얼 어문론집》제 16집, pp. 187-206.

김현수, 2002, “다산 정약용의 국가례 고찰,” 《한국철학논집》 제 12집, pp. 143-173.

김형효, 2004, “<존재와 무(無)>의 문화적 상징과 철학적 의미,”《기호학 연구》제 16권, pp. 47-78.

박선영, 1995, “과학적 방법론과 현상학적 방법론의 이질 동형성 비판,”《한국행정학보》제 29권 제4호, pp.

안대회, 2005, “다산 제자 이강회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 제10권, pp. 289-321.

양해림, 2003, “제2부 딜타이와 정신과학의 해석학 : 이해와 설명의 방법 -딜타이와 베버의 수단/목적의 행위 이론 고찰” 《해석학연구》 Vol.12, pp. 156-198.

윤재풍 역, 2001, 《사회과학과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윤재풍, 2005, “다산의 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대희, 1999, 《한국의 인식론: 한국인들의 세상보기》, 서울: 대영문화사.

이병량, 2002, “조선초 관료제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을 통한 해석,” 《정부학연구》제8권 제1호, pp. 239-273.

이항로, 2005, “화서 이항노의 주리론과 퇴계학,” 《퇴계학보》제 117집.

장복동, 2004, “정약용의 인식론과 실천윤리”, 《동서철학연구》 제 32호, pp. 187-206.

조혜인, 1998, “유교와 포스트모더니즘 - 베버 유교관의 지양을 통한 전향적 대화,” 《동아연구》 Vol.35, pp. 301-361.

최동희, 1984, 《서학에 대한 한국실학의 반응》,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호근, 2005, “19세기 말의 문화사 담론과 막스 베버의 역사적 문화과학,” 《역사학보》 Vol.186, pp. 237-265.

Burrell G. & Morgan G. 1982.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Elements of the Socialogy of Corporate Life*. London·Exeter, New Hampshire : Heinemann.

Cohen, P. S. 1968. *Modern Social Theory.* London: Heinemann.